

목 차

<2014년 7월>

I. 주요 행사

1. 도로문화 전문연구위원회 세미나 및 토론회 9차
2. 중소,중견기업 도로포장 발전방안 포럼
3. 도로의 날 도로정책 홍보

II. 주요 회의

1. 이사회 회의
2. 학회지편집위원회 회의
3. 유지보수분과 소모임

<2014년 6월>

I. 주요 행사

1. 도로안전시물레이션 세미나
2. 도로투자 효율성 향상방안 세미나
3. 도로문화 세미나
4. 도로포장 기사 자격 신설을 위한 간담회

II. 주요 회의

1. 학회지편집위원회 회의
2. 기획팀 회의
3. 세계도로대회 방문 간담회
4. 도로안전을 반영한 도로설계 회의
5. 유지보수분과위원회 소모임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14년 7월>

I. 주요 행사

1. 도로문화 세미나 및 토론회(위원장 노관섭)

한국도로학회(도로문화전문연구위원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동으로 국가적 화두인 문화와 복지,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도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로문화'에 대한 정기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창조경제를 추구하면서 복지와 문화를 융합한 도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도로 및 도로기술, 그리고 도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 세미나 및 토론회를 6차에 걸쳐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도 여섯 차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9차 토론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한국도로학회 도로문화전문연구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회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변의 관심 있으신 비회원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 일 시 : 2014. 7. 9(수) 15:00-16:3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신관 1층)
- 주 제 : 아시안 하이웨이와 도로문화
- 연 사 : 권영인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협력연구실)
- 주 최 : 한국도로학회(도로문화전문연구위원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문 의 : 도로문화전문연구위원회 간사 이유화
031-910-0763 ylee@kict.re.kr

[목차로 돌아가기](#)

2. 중소,중견기업 도로포장 발전방안 포럼(기획위원회 위원장 손종철)

- 일시 : 2014. 7. 16(수) 17:00
- 장소 : 군인공제회관
- 주제 : 도로포장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
- 주최 : 기획위원회
- 문의 : 권수안 010-6383-3936 sakwon@kict.re.kr

[목차로 돌아가기](#)

3. 도로의 날 도로정책 홍보 (도로정책분과위원장 김호정)

- 내용 : 도로의 날(7.7(월))을 맞이하여 도로정책 홍보 CD 배포 계획
- 대상 : 국토교통부 및 도로학회 회원 등 관련 관·학·연 전문가
- 문의 : 김준기 010-9349-8070 kimjoonki@krihs.re.kr

[목차로 돌아가기](#)

<2014년 7월>

II. 주요 회의

1. 이사회 (회장 서영찬)

- 일시 : 2014. 7. 3(수) 18:00
- 장소 : 군인공제회관
- 문의 : 학회사무국 02) 3272-1993

[목차로 돌아가기](#)

2. 학회지편집위원회 회의 (위원장 조한선)

- 일시 : 2014년 7월 18일(금) 18:30
- 장소 : 학회사무실
- 회의내용 : 6월호 학회지 편집
- 문의 : 학회사무국 02) 3272-1993

[목차로 돌아가기](#)

3. 유지보수분과위원회 소모임 (위원장 진정훈)

1) 2014년 7월4일 07시30분 유지보수/재활용분과 소모임
장소 : 학동역 카페베네
주제 : 재생 아스팔트 미국기준

2) 2014년 7월17일 07시30분 유지보수/재활용분과 소모임
장소 : 학동역 카페베네
주제 : 재생 아스팔트 국내기준

[목차로 돌아가기](#)

<2014년 6월>

I. 주요 행사

1. 도로안전 시뮬레이션 전문연구위원회 세미나(위원장 오철)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16:00-18:00
-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제2공학관 223호
- 주제 : 도로교통안전과 시뮬레이션
 - 주제발표 1
The Potential of Simulation Techniques to Evaluate Traffic Safety Improvements
(Prof. Mohamed Abdel-Aty)
 - 주제발표 2
Safety Impacts of V2V-based Warning Information Systems using Microscopic Traffic Simulations
(Prof. Cheol Oh)

목차로 돌아가기

2. 도로 투자 효율성 향상방안 세미나 (기획위원회 위원장 손종철)

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10일(화)에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도로투자 효율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학회 기획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정부부처, 공사/공단, 관련 전문학회 및 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도로투자 결정을 위한 편익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도로투자 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함에서 도로이용자 측면에서 도로사업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로의 편익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발표자
 - 일반국도 편익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김혜란 박사, 국토연구원)
 - 고속도로 편익제고를 위한 개선방안(홍상연 박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토론자(안)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김용석 과장
 - 교통연구원 김찬성 박사
 - KDI 여흥구 박사
 -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 서울과학대학교 정성봉 교수
 - 미래교통 최 준 사장
 - 박효기 부사장 등



■ 토의 및 논의 내용 정리

- 투평지침, 예타지침에서 설정하는 편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새로운 항목에 대한 모색, 열린 평가체계 필요
- 투평지침 및 예타지침은 원단위 개선 등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구 필요
- 지금까지 편익, 경제성 평가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해서 반영할 부분, 개선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설계속도, 자유속도, 통행속도 등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이동성/접근성 논의에서 현재 화두는 복지와 관련하여 접근성으로 무게가 실림. 너무 이동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복지와 함께 고민해야 함
- 기존 편익 보안을 하기 위해, 비개량화 항목을 개량화, 또는 고려되지 않았던 항목을 현실화할 필요
- 한미도로협력, 한중도로협력, 북한도로협력 등 도로망을 근본적으로 크게 보고 향후 비전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함
- 예타와 본타의 기능 정상화 필요. 앞으로는 투자평가라는 것은 본타당성 평가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야하며, 예타는 경제성 판단 정도로만 활용. 예타와 본타의 역할정립이 중요
-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나 토론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

목차로 돌아가기

3. 도로문화 세미나 및 토론회(8차)

- 일시 : 2014. 6. 18(수) 15:00-16:20
- 장소 : 동부엔지니어링 회의실(서울역 앞)
- 주제 : 도로설계에서의 도로문화
- 연사 : 송민태 책임연구원 (동부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 참석자 : 위원회 위원 등 20인

주제발표에서는 도로설계의 문화적 요인으로 도로설계에서의 문화적 고려사항과 박정자 삼거리, 말죽거리, 천년향(서초동 향나무) 등 도로문화 흔적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외 도로설계에서의 문화적 요인 반영 관련하여, 미국의 Context Sensitive Design(맥락 지향적 설계), Community Impact Assessment(지역사회 영향 평가), Design and Management of Historic Road(역사적 중요도로의 설계와 관리) 등을 소개하였다. 도로설계에서의 도로문화 반영방안으로서 (1) 도로계획 단계에서의 역사적, 문화적 보존 (2) 국도 44호선 한계령 도로 사례를 통한 도로와 관련된 문화 반영하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로문화 활성화방안으로 도로문화의 홍보, 도로재생을 통한 도로문화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들을 도로 속으로 끌어들이 도로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경관도로나 도로재생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도로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로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설계자들의 도로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쉬운 설계보다는 도로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도로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켜 녹여내는 노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라고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본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학회지에 기고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옛날 도로 발굴은 그동안 지리학자 중심으로 해왔는데, 도로분야에서 도로 기술자가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양한 도로관련 관광자원 발굴 등에 나서야 할 때임[노관섭]. 인문학(문화재 포함) 도입을 통한 달리는 도로에서도 역사 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자들의 노력(공부)이 필요함[김도현]. 사회발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며, 한발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함. 이를 위한 문화적 가치 도입 필요. 이론과 이념의 상생을 통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로가 중요함. 생태학계는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로도 사회가 요구하는 쪽으로의 기술개발 필요(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학회·학생 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함[이창림].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단계별 설계 품셈 필요. 도로문화를 반영함으로 인하여 도로가치 상승, 국토지역개발, 국력상승이 될 것임. 도로설계보고서에 문화·역사·경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도로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회사 등 업체의 문화 역사 경관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보고서에 수록해야 함. 도로문화는 정신, 물질적으로 형성. 도로관련 자료를 문화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야 함.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노력 필요. 도로문화연구는 도로문화가 실현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기에 정부와의 지속적인 공조가 필요함[박태권].

도로문화의 실제 실현을 위해 설계전문가의 입장, 관(청)의 입장, 일반인의 입장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를 가진 도로라는 홍보가 필요. 도로문화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copyright)를 통해 신문기고 등 홍보를 통하여 인식 전환 필요[조혜진]. 발표에서 보여줬던 한계령길에 있는 공병비는 의미있는 유산이지만, 찾기 힘들. 발주처 등에 이러한 유산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자리 마련 필요. 도로설계보고서에 경관설계분야를 수록하였던 사례가 있음. 이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각함[손원표]. 도로문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를 위한 타겟이 필요. 홍보를 위하여 기자들에게도 알리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 필요. 가치있는 도로문화체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예 : 해외에는 볼거리 등을 위한 박물관 존재), 인상적인 아이টে임을 발굴해야 함. 즉, 도로문화에 대한 사명의식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도로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문지영].



도로문화 세미나 및 토론회(8차)

목차로 돌아가기

4. 도로포장기사 신설 관련 간담회

일시 : 2014년 6월 27일(금) 07:30

장소 : 팔레스호텔

참석 : 권수안, 이현중, 이상엽, 곽평진, 이창욱, 김찬우

<간담회 내용>

(이창욱) 다른 기사 자격증과 중복되는 문제와, 규제강화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현중) 현재 감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기대역할이 분명히 있음.

(권수안) 너무 세분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음. 선진국일수록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임. 또한 SOC에서 비중이 큰 도로분야가 자격증이 없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는 기득권에 의해 진입이 어려웠던 점이 있음.

(이현중)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가지 방향은 토목기사 시험과목에 도로공학이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도로포장 기사 자격증을 별도로 만들거나 이며, 그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내용임.

(김찬우) 도로포장분야를 단순 기능적인 분야로 보는 시각이 많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을 키우고, 전문기술을 가지고 평생 업력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도로포장 자격증을 신설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됨.

(이상엽) 서울시에서도 전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것은 전문가를 육성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전문 자격증을 신설하여 도로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

(권수안) 학회에서 산업인력공단에 먼저 면담을 하여 사전에 도로포장 기술자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후에 각 기관에서 보는 관점을 정리하여 자격 신설 요청공문을 산업인력공단에 보내기로 함.

목차로 돌아가기

<2014년 6월>

II. 회의

1. 학회지편집위원회 회의 (위원장 조한선)

■ 일시 : 2014년 6월 12일(수) 18:30

■ 장소 : 학회사무실

■ 참석 : 조한선, 김인태, 이재환, 김동규, 이동민, 이재준, 박민철, 박준식, 김용주, 백종대, 김상호, 김도경

■ 회의내용 : 6월호 학회지 편집

목차로 돌아가기

2. 기획위원회 회의 (위원장 손종철)

-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19:00
- 장소: 반포
- 참석자: 서영찬, 손종철, 권수안, 노성열, 최준성, 배종오
- 내용: 기획팀 구성 및 향후 업무추진일정 협의

목차로 돌아가기

3. 세계도로대회 방문 간담회(도로정책위원장 김호정)

- 일시 : 6. 13(금) 안양 평촌 국토연구원
- 회의내용 : 세계도로대회 홍보 및 협조 관련 논의
- 참석자 : 조용주 수석부위원장·홍석기 사무차장·송창준 기획조정실장·최현호 학술팀장 (세계도로대회 조직위원회), 김경환 원장·이상건 본부장 등 (국토연구원) 및 도로정책위원회 분과위원 참석

목차로 돌아가기

4. 도로의 안전성을 반영한 도로계획 수립 관련 논의(도로정책위원장 김호정)

- 일시 : 6. 18(수) 안양 평촌 국토연구원
- 회의내용 : 국도 건설계획 등에서 도로의 안전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참석자 : 도로정책위원회 분과위원 대상

목차로 돌아가기

5. 유지보수/재활용분과 소모임 (위원장 진정훈)

- 1) 2014년 6월9일 07시30분 유지보수/재활용분과 소모임
장소 : 논현역 7번출구 디초코렛카페
참석자 : 최준성, 노성환, 장영두, 이재식, 진정훈
주제 : 재생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 2) 2014년 6월19일 19시 00분 유지보수/재활용분과 소모임
장소 : 덕평랜드
참석자 : 최준성, 채포기, 진정훈
주제 : 재생 아스팔트 품질기준 및 분리발주
- 3) 2014년 6월24일 07시 30분 유지보수/재활용분과 소모임
장소 : 논현역 7번출구 디초코렛카페
참석자 : 최준성, 노성환, 이재식, 진정훈
주제 : 재생 아스팔트 일본 기준

목차로 돌아가기